

설문분석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통계팀
(박세진 박사: 010-9896-7640)

1. 분석대상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사 및 관리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위하여 층화군집무선추출법을 적용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서울·경기·인천 시도교육청의 각 하위교육지원청별 내 학교 규모에 표집 학교 수를 정한 후 무선적으로 학교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초등학교에서는 2·5학년 1반의 학부모, 중학교는 2·3학년 1반의 학생 및 학부모, 고등학교는 1·2학년 1반의 학생, 학부모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교원의 경우 선정된 학교의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해당 학년 담임 교사 전원이 설문에 응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 대상별로 교사 1,377명, 관리자 261명, 학부모 3,323명, 학생 2,217명이 표집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56명, 경기 4,651명, 인천 304명이 표집되었다. 응답자들에게 학생들이 주당등교횟수를 물어본 결과 주1회 1,990명, 주2회 1,210명, 주3회 1,135명, 주4회 101명, 주5회(매일) 등교는 2,759명이라고 응답하였다. 분석대상은 <표 1> 및 [그림 1-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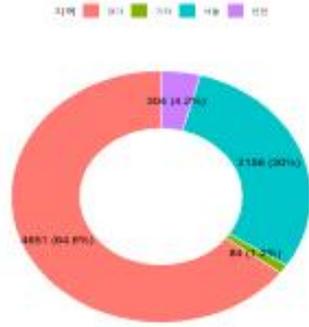
설문문항은 중립 응답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4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분석도구는 R 4.0.2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들에 대하여 기초통계분석, 교차분석, 집단비교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지역	응답자(명)	비율(%)
교사	서울	516	(37.47)
	경기	764	(55.48)
	인천	50	(3.63)
	기타	47	(3.41)
	계	1,377	(100.00)
관리자 (교장+교감)	서울	97	(37.16)
	경기	155	(59.39)
	인천	8	(3.07)
	기타	1	(0.38)
	계	261	(100.00)
학부모	서울	899	(27.05)
	경기	2,273	(68.40)
	인천	126	(3.79)
	기타	25	(0.75)
	계	3,323	(100.00)
학생	서울	640	(28.87)
	경기	1,448	(65.31)
	인천	119	(5.37)
	기타	10	(0.45)
	계	2,217	(100.00)



[그림] 대상별 응답자 분포



[그림] 지역별 응답자 분포



[그림] 등교횟수별 응답자 분포

2. 분석결과

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1) 대상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교사, 관리자, 학부모, 학생 집단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수업 인식 관련 모든 문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대상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분석 결과

문항	집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비율)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수업 도입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교사	10 (0.73%)	23 (1.67%)	463 (33.62%)	881 (63.98%)	1,377 (100.00%)	749.704***		
	관리자	1 (0.38%)	4 (1.53%)	64 (24.52%)	192 (73.56%)	261 (100.00%)			
	학부모	101 (3.04%)	178 (5.36%)	1,484 (44.66%)	1,560 (46.95%)	3,323 (100.00%)			
	학생	224 (10.10%)	348 (15.70%)	886 (39.96%)	759 (34.24%)	2,217 (100.00%)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	교사	99 (7.19%)	502 (36.46%)	574 (41.68%)	202 (14.67%)	1,377 (100.00%)	455.553***		
	관리자	9 (3.45%)	89 (34.10%)	128 (49.04%)	35 (13.41%)	261 (100.00%)			
	학부모	108 (3.25%)	821 (24.71%)	1,520 (45.74%)	874 (26.30%)	3,323 (100.00%)			
	학생	280 (12.63%)	863 (38.93%)	779 (35.14%)	295 (13.31%)	2,217 (100.00%)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	교사	35 (2.54%)	228 (16.56%)	682 (49.53%)	432 (31.37%)	1,377 (100.00%)	379.683***		
	관리자	5 (1.92%)	47 (18.01%)	139 (53.26%)	70 (26.82%)	261 (100.00%)			
	학부모	89 (2.68%)	521 (15.68%)	1,559 (46.92%)	1,154 (34.73%)	3,323 (100.00%)			
	학생	236 (10.65%)	587 (26.48%)	911 (41.09%)	483 (21.79%)	2,217 (100.00%)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적어 가정(학부모)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졌다.	교사	59 (4.28%)	227 (16.49%)	770 (55.92%)	321 (23.31%)	1,377 (100.00%)	1127.288***		
	관리자	6 (2.30%)	35 (13.41%)	154 (59.00%)	66 (25.29%)	261 (100.00%)			
	학부모	202 (6.08%)	685 (20.61%)	1,432 (43.09%)	1,004 (30.21%)	3,323 (100.00%)			
	학생	529 (23.86%)	832 (37.53%)	644 (29.05%)	212 (9.56%)	2,217 (100.00%)			
현재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인하여	교사	105 (7.63%)	527 (38.27%)	575 (41.76%)	170 (12.35%)	1,377 (100.00%)	260.369***		
	관리자	18	95	122	26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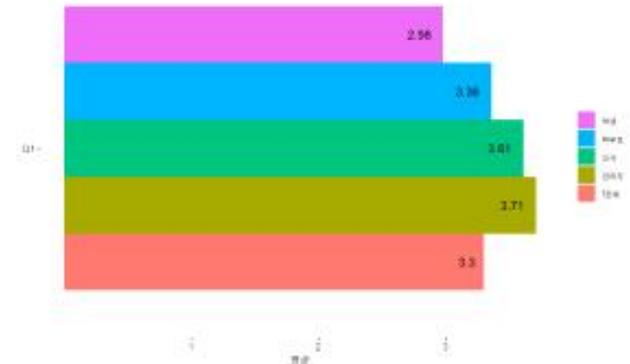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	학부모	(6.90%) 208	(36.40%) 878	(46.74%) 1,245	(9.96%) 992	(100.00%) 3,323	711.853***
	학생	(6.26%) 218	(26.42%) 519	(37.47%) 854	(29.85%) 626	(100.00%) 2,217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인터넷, 핸드폰)이 심화되었다.	교사	80	417	602	278	1,377	714.285***
	관리자	14	93	125	29	261	
	학부모	147	567	1,237	1,372	3,323	
	학생	350	680	776	411	2,217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의 학습 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교사	14	257	705	401	1,377	526.119***
	관리자	5	45	135	76	261	
	학부모	266	1,293	1,559	205	3,323	
	학생	207	593	1,141	276	2,217	
우리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에 만족한다.	교사	28	177	800	372	1,377	755.772***
	관리자	3	43	141	74	261	
	학부모	411	1,173	1,509	230	3,323	
	학생	248	426	1,092	451	2,217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140	521	450	266	1,377	307.475***
	관리자	15	84	100	62	261	
	학부모	657	1,136	1,294	236	3,323	
	학생	460	580	835	342	2,217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 탑재하고 있다.	교사	16	100	703	558	1,377	1093.032***
	관리자	2	28	157	74	261	
	학부모	347	1,040	1,696	240	3,323	
	학생	123	352	1,259	483	2,217	
나는 등교개학보다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교사	394	572	277	134	1,377	550.035***
	관리자	91	122	34	14	261	
	학부모	1,159	1,152	704	308	3,323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학생	(34.88%) 498	(34.67%) 511	(21.19%) 629	(9.27%) 579	(100.00%) 2,217	437.838***
	교사	(22.46%) 322	(23.05%) 405	(28.37%) 495	(26.12%) 155	(100.00%) 1,377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관리자	65	43	110	43	261	437.838***
	학부모	1,323	918	802	280	3,323	
	학생	555	447	739	476	2,217	
		(25.03%)	(20.16%)	(33.33%)	(21.4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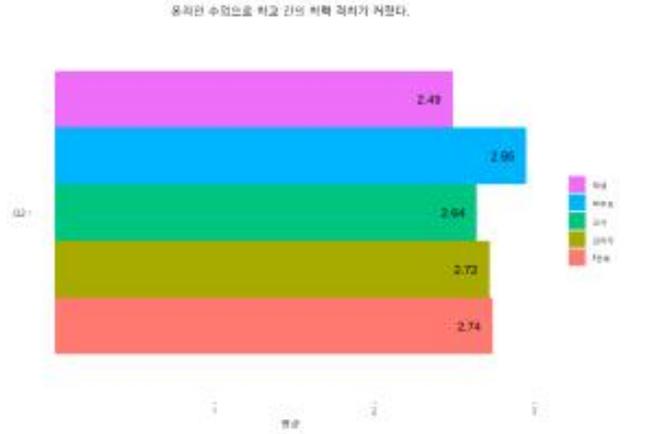
*** $p < .001$

온라인 수업 도입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들이 동의 하였으나, 학생이나 학부모 집단에 비해 교원집단들은 더 강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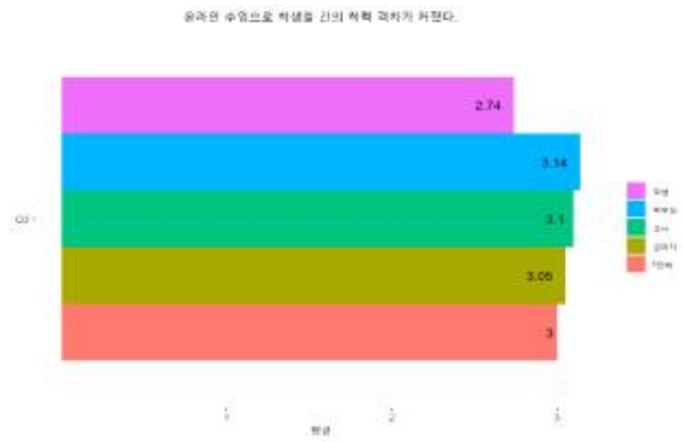
코로나19에 관하여 온라인 수업 도입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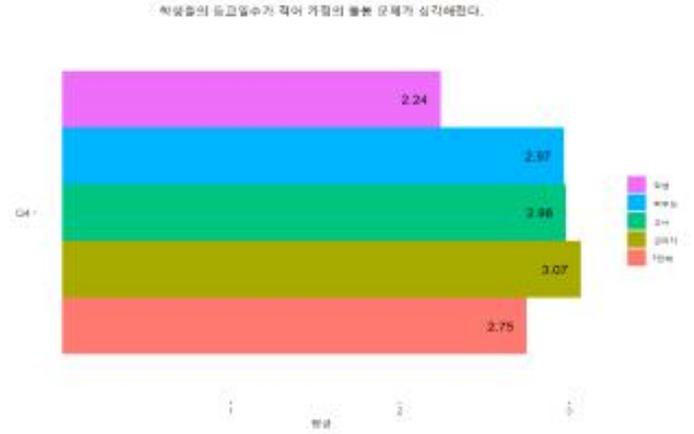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는 질문에는 학부모는 그렇다고 인식한 반면, 교원 및 학생들은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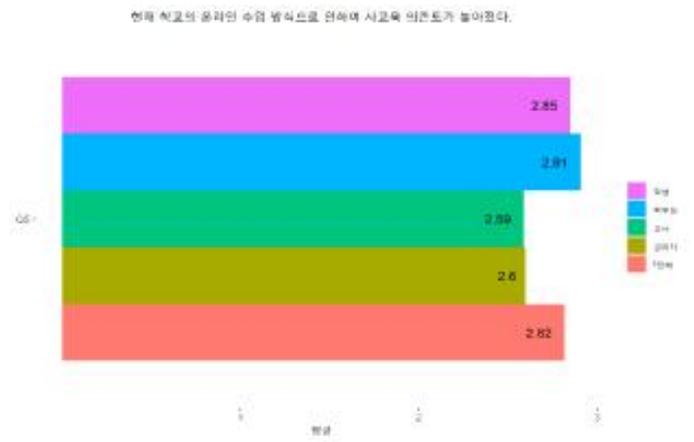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는 질문에는 교원 및 학부모는 그렇다고 인식한 반면, 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적어 가정(학부모)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질문에는 교원 및 학부모는 그렇다고 인식한 반면,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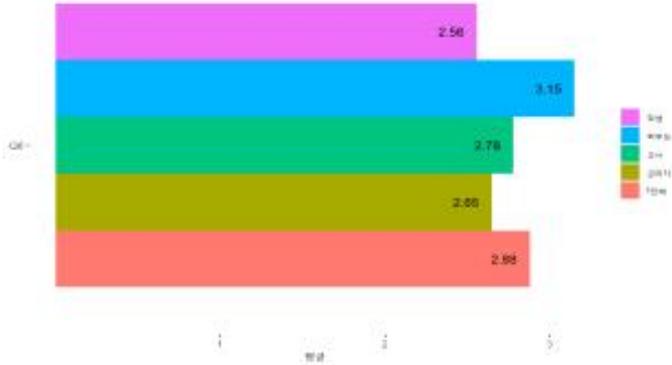


현재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질문에는 교원 집단은 보통 정도라고 인식한 반면, 학생 및 학부모 집단은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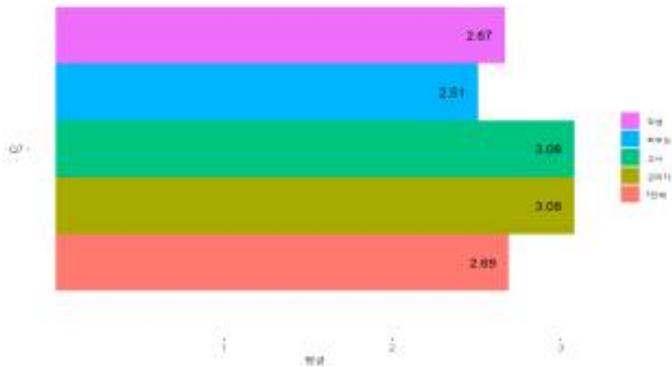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인터넷, 핸드폰)이 심화되었다는 질문에 교사, 관리자, 학생은 보통 정도라 인식한 반면, 학부모는 사이버 중독이 심화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이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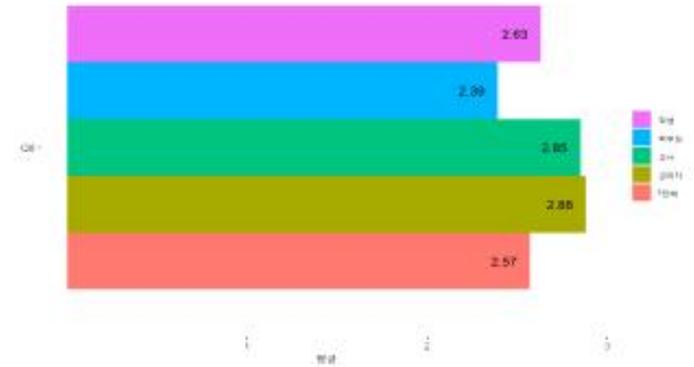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의 학습 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교원에는 그렇다고 인식한 반면, 학생 및 학부모 집단은 상대적으로 등교 개학에 비하여 학습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의 학습 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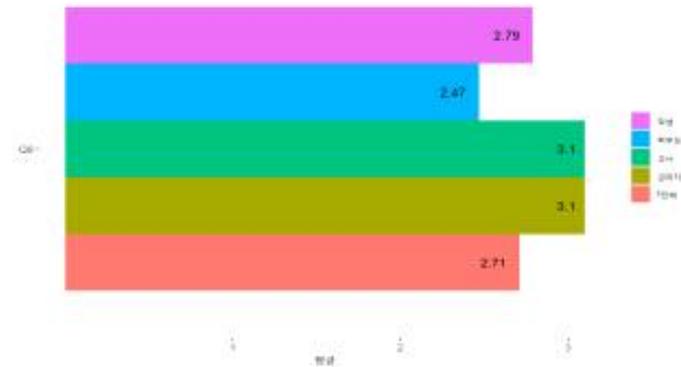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교원은 대체로 그렇다, 학생은 보통, 학부모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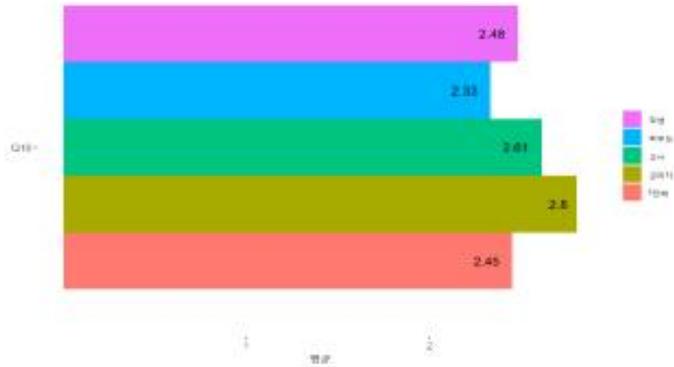
우리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교원은 그렇다, 학생은 대체로 그렇다, 학부모는 보통 정도의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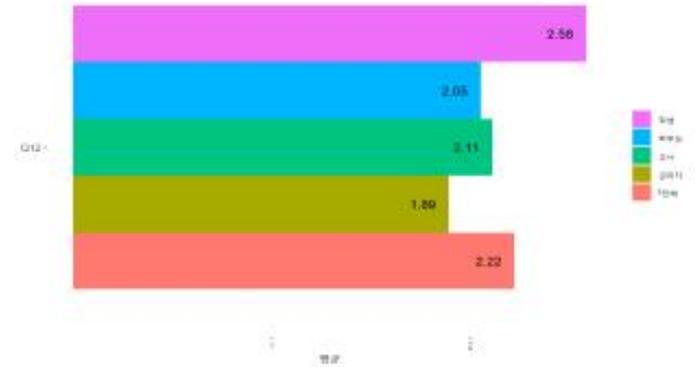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관리자는 대체로 그렇다, 교사 및 학생은 보통, 학부모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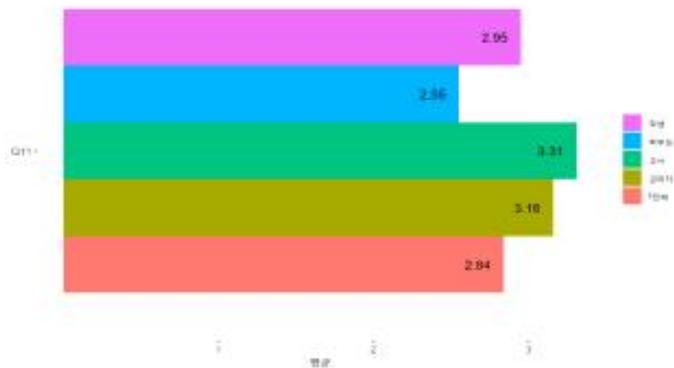
나는 등교개학보다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는 질문에는 관리자, 교사, 학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반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등교개학보다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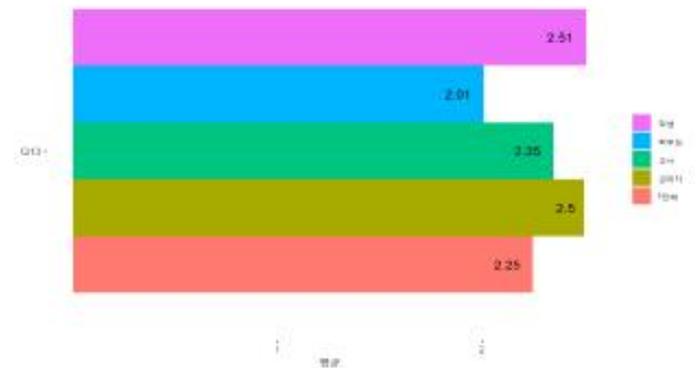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 탑재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교사는 매우 그렇다, 관리자 및 학생은 그렇다, 학부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정도의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 탑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관리자와 학생은 보통 정도, 교사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학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2) 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수업 인식 관련 학교 간 학력 격차, 사교육 의존도, 사이버 중독, 학습 및 생활지도 지원, 온라인 수업 만족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인식, 향후 온라인 수업 병행 여부와 관련된 문항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교차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분석 결과

문항	집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전체 (비율)	X ²
		사레스 (비율)	사레스 (비율)	사레스 (비율)	사레스 (비율)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수업 도입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서울	99 (4.59%)	159 (7.37%)	818 (37.94%)	1,080 (50.09%)	2,156 (100.00%)	14.771				
	경기	221 (4.75%)	368 (7.91%)	1,924 (41.37%)	2,138 (45.97%)	4,651 (100.00%)					
	인천	15 (4.93%)	27 (8.88%)	124 (40.79%)	138 (45.39%)	304 (100.00%)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	서울	154 (7.14%)	701 (32.51%)	912 (42.30%)	389 (18.04%)	2,156 (100.00%)	19.184*				
	경기	313 (6.73%)	1,445 (31.07%)	1,953 (41.99%)	940 (20.21%)	4,651 (100.00%)					
	인천	19 (6.25%)	101 (33.22%)	118 (38.82%)	66 (21.71%)	304 (100.00%)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	서울	112 (5.19%)	429 (19.90%)	1,006 (46.66%)	609 (28.25%)	2,156 (100.00%)	11.257				
	경기	236 (5.07%)	872 (18.75%)	2,136 (45.93%)	1,407 (30.25%)	4,651 (100.00%)					
	인천	15 (4.93%)	72 (23.68%)	122 (40.13%)	95 (31.25%)	304 (100.00%)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적어 가정(학부모)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졌다.	서울	249 (11.55%)	534 (24.77%)	921 (42.72%)	452 (20.96%)	2,156 (100.00%)	16.017				
	경기	501 (10.77%)	1,148 (24.68%)	1,929 (41.47%)	1,073 (23.07%)	4,651 (100.00%)					
	인천	44 (14.47%)	81 (26.64%)	113 (37.17%)	66 (21.71%)	304 (100.00%)					
현재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	서울	171 (7.93%)	620 (28.76%)	852 (39.52%)	513 (23.79%)	2,156 (100.00%)	20.362*				
	경기	346 (7.44%)	1,277 (27.46%)	1,821 (39.15%)	1,207 (25.95%)	4,651 (100.00%)					
	인천	25 (8.22%)	91 (29.93%)	103 (33.88%)	85 (27.96%)	304 (100.00%)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인터넷, 핸드폰)이 심화되었다.	서울	192 (8.91%)	575 (26.67%)	835 (38.73%)	554 (25.70%)	2,156 (100.00%)	29.919***				
	경기	370 (7.96%)	1,073 (23.07%)	1,777 (38.21%)	1,431 (30.77%)	4,651 (100.00%)					
	인천	25 (8.22%)	85 (27.96%)	103 (33.88%)	91 (29.93%)	304 (100.00%)					
등교개학 시점과	서울	142	663	1,039	312	2,156	20.765*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의 학습 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경기	(6.59%) 323	(30.75%) 1,428	(48.19%) 2,311	(14.47%) 589	(100.00%) 4,651	17.472*			
	인천	(6.94%) 21	(30.70%) 89	(49.69%) 155	(12.66%) 39	(100.00%) 304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서울	(8.30%) 179	(37.62%) 811	(42.35%) 913	(11.73%) 253	(100.00%) 2,156	17.472*			
	경기	(8.99%) 418	(35.76%) 1,663	(44.96%) 2,091	(10.30%) 479	(100.00%) 4,651				
우리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에 만족한다.	인천	(10.20%) 31	(33.22%) 101	(45.07%) 137	(11.51%) 35	(100.00%) 304	21.142*			
	서울	(8.81%) 190	(23.84%) 514	(50.00%) 1,078	(17.35%) 374	(100.00%) 2,156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10.04%) 467	(26.36%) 1,226	(48.98%) 2,278	(14.62%) 680	(100.00%) 4,651	123.849***			
	인천	(9.54%) 29	(22.37%) 68	(49.34%) 150	(18.75%) 57	(100.00%) 304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 탑재하고 있다.	서울	(22.31%) 481	(35.48%) 765	(32.19%) 694	(10.02%) 216	(100.00%) 2,156	13.244			
	경기	(15.44%) 718	(30.14%) 1,402	(40.25%) 1,872	(14.17%) 659	(100.00%) 4,651				
나는 등교개학보다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인천	(21.05%) 64	(39.80%) 121	(31.91%) 97	(7.24%) 22	(100.00%) 304	10.040			
	서울	(8.81%) 148	(21.34%) 460	(51.95%) 1,120	(19.85%) 428	(100.00%) 2,156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경기	(6.67%) 310	(21.33%) 992	(53.88%) 2,506	(18.13%) 843	(100.00%) 4,651	30.830***			
	인천	(8.22%) 25	(20.72%) 63	(49.67%) 151	(21.38%) 65	(100.00%) 304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서울	(28.01%) 604	(32.51%) 701	(24.17%) 521	(15.31%) 330	(100.00%) 2,156	10.040			
	경기	(30.55%) 1,421	(32.75%) 1,523	(22.53%) 1,048	(14.17%) 659	(100.00%) 4,651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인천	(30.26%) 92	(34.87%) 106	(21.71%) 66	(13.16%) 40	(100.00%) 304	30.830***			
	서울	(27.64%) 596	(25.19%) 543	(32.51%) 701	(14.66%) 316	(100.00%) 2,156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경기	(33.52%) 1,559	(25.07%) 1,166	(28.60%) 1,330	(12.81%) 596	(100.00%) 4,651	30.830***			
	인천	(30.59%) 93	(28.62%) 87	(28.95%) 88	(11.84%) 36	(100.00%) 304				

*p < .05, ***p < .001

나. 학교 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및 현황

1) 대상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및 현황

학교 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각 집단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후분석결과 학습자료준비 및 학습 계획 및 공지, 학습 진행은 모두 교사, 관리자, 학생, 학부모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결 및 평가는 교원(교사+관리자), 학생, 학부모 순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사와 관리자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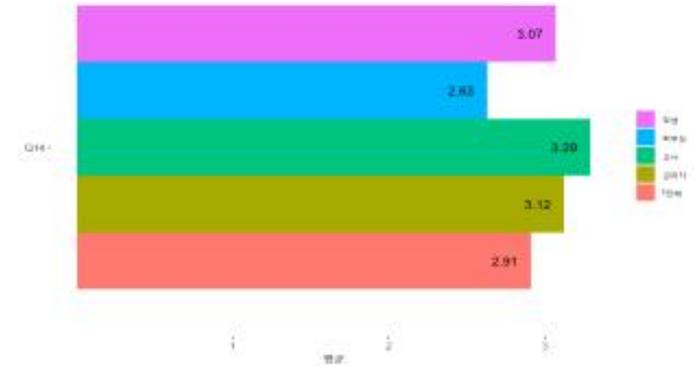
<표 4> 대상별 학교 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항목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 Welch	사후분석
학습 자료 준비	교사(a)	1,377	3.24	0.509	303.930***	a>b>d>c
	관리자(b)	261	3.12	0.446		
	학부모(c)	3,323	2.78	0.513		
	학생(d)	2,217	3.06	0.533		
	합계	7,195	2.97	0.547		
학습 계획 및 공지	교사(a)	1,377	3.50	0.467	429.453***	a>b>d>c
	관리자(b)	261	3.39	0.452		
	학부모(c)	3,323	2.97	0.506		
	학생(d)	2,217	3.10	0.599		
	합계	7,195	3.12	0.566		
학습 진행	교사(a)	1,377	3.46	0.490	417.878***	a>b>d>c
	관리자(b)	261	3.36	0.508		
	학부모(c)	3,323	2.86	0.569		
	학생(d)	2,217	3.11	0.560		
	합계	7,195	3.07	0.596		
출결	교사(a)	1,377	3.61	0.513	393.755***	a=b>d>c
	관리자(b)	261	3.55	0.512		
	학부모(c)	3,323	3.08	0.577		
	학생(d)	2,217	3.11	0.609		
	합계	7,195	3.21	0.612		
평가	교사(a)	1,377	3.34	0.597	248.481***	a=b>d>c
	관리자(b)	261	3.33	0.569		
	학부모(c)	3,323	2.86	0.581		
	학생(d)	2,217	2.98	0.651		
	합계	7,195	3.01	0.63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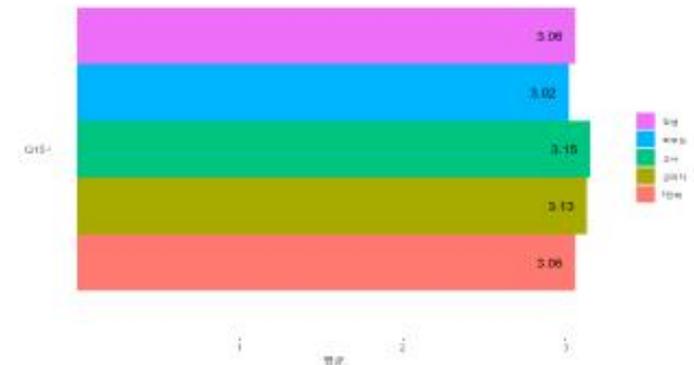
대상별로 학습자료준비에 대한 세부 문항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교가 학습자료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였냐는 질문에는 교원 및 학생은 그렇다고 인식한 반면,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학습자료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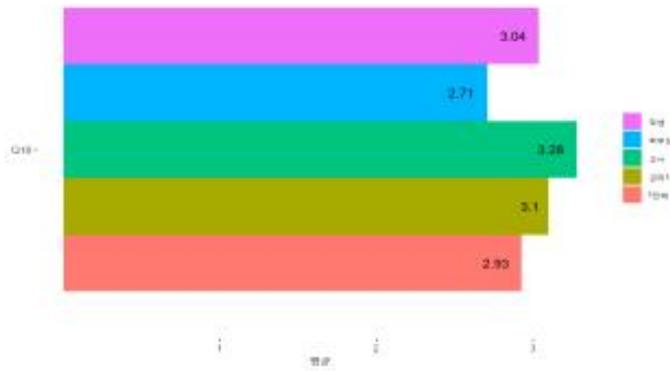
학교는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는 모든 집단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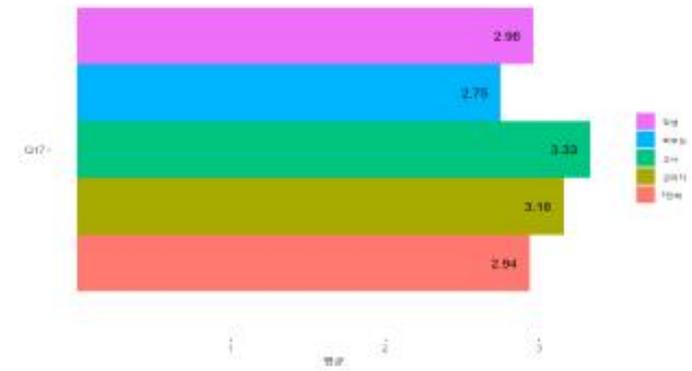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의 수준이 온라인 학습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사가 가장 높게 그렇다라고 인식하였고, 관리자 및 학생 역시 그렇다라고 인식한 반면, 학부모는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 수준은 온라인 학습에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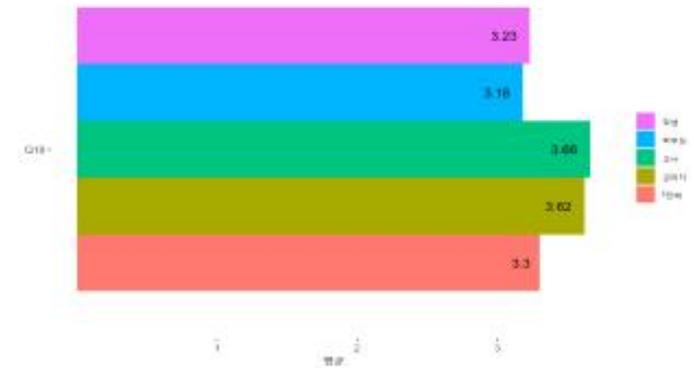


대상별로 학습 계획 및 공지에 대한 세부 문항 차이를 살펴보았다. 온라인 활동에 사용된 과제 분량의 적절성에 대하여 교사 및 관리자, 학생은 그렇다로 학부모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운영에 대한 안내는 교원은 대체로 매우 그렇다였고, 학생 및 학부모도 그렇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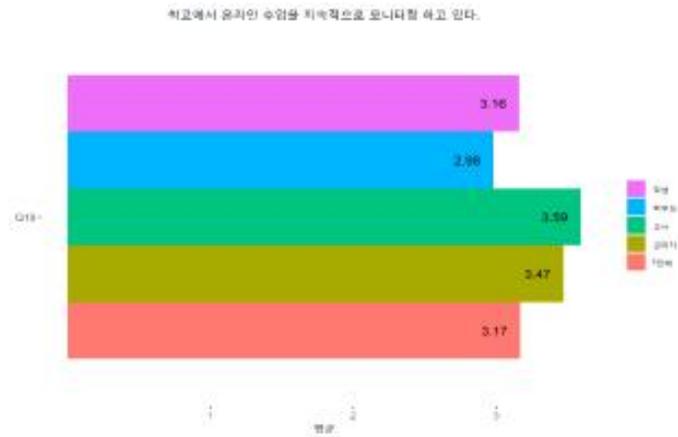
온라인 활동 및 운영방안을 위해 부여된 과제는 학생들이 수행하기에 적절한 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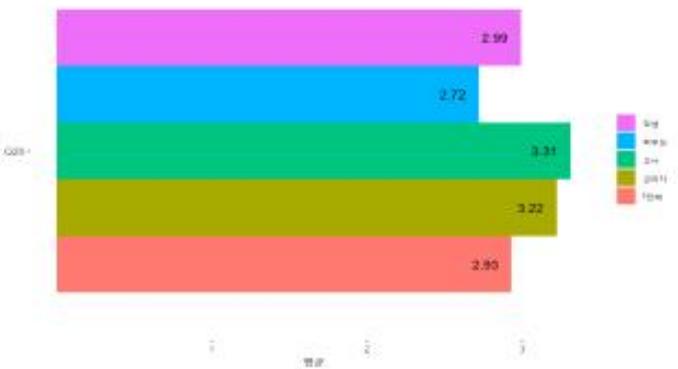
온라인 수업 게시 및 문양에 대한 안내를 SMS, 이메일 등으로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대상별로 학습 진행에 대한 세부 문항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모니터링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사 및 관리자는 대체로 매우 그렇다로, 학생 및 학부모도 그렇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타당한 활동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교사와 관리자, 학생은 그렇다로 생각하는 반면,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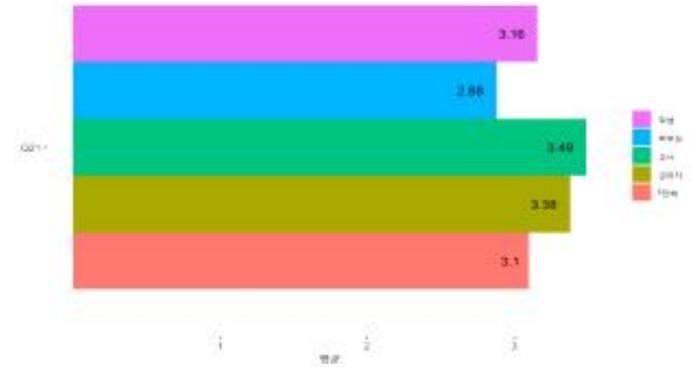


온라인 학습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타당한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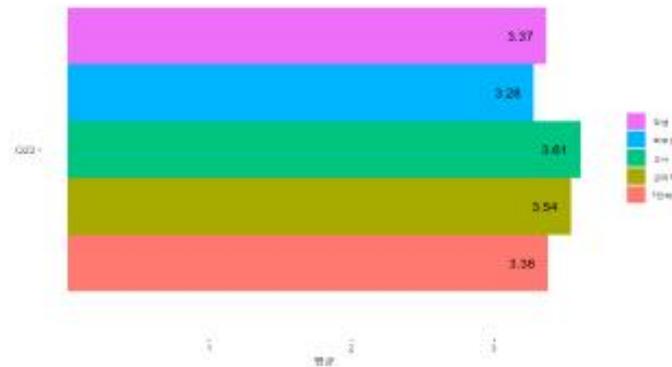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사와 관리자는 대체로 매우 그렇다로, 학생도 그렇다로 높았던 반면,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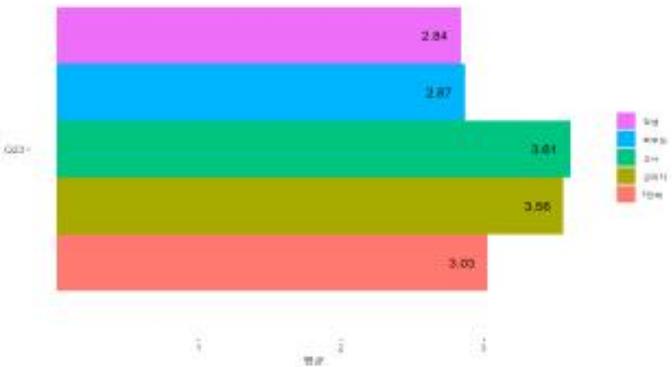


대상별로 출결에 대한 세부 문항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매일 출결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체험학습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교사는 철저히 관리했다고 인식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온라인 수업 출결확인에 어려움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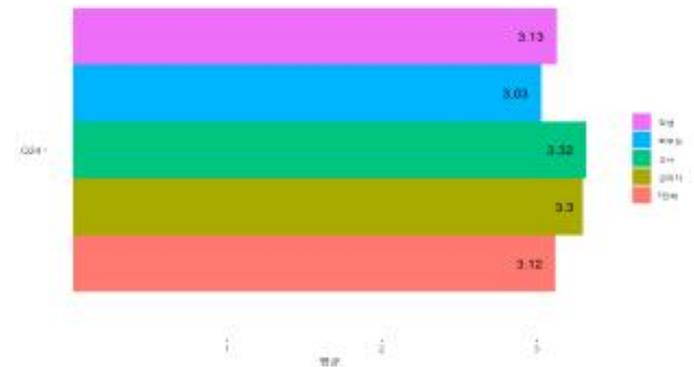


가정학습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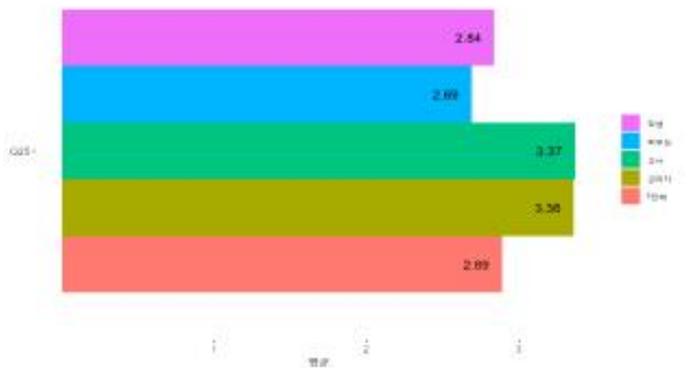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대상별로 평가에 대한 세부 문항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과제, 온라인 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온라인 수업 기간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 활동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는 교사와 관리자는 그렇다로 평가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과제, 온라인 활동, 게시판, 출석 시험 등으로 학습 평가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피드백 등에 대한 평가를 주었다.



2) 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및 현황

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및 현황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 계획 및 공지, 학습 진행만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에 모두 사후분석 결과 서울이 경기보다 인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5> 지역별 학교 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항목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 Welch	사후분석
학습 자료 준비	서울(a)	2,156	2.98	0.567	.951	
	경기(b)	4,651	2.96	0.536		
	인천(c)	304	2.96	0.561		
	합계	7,111	2.97	0.547		
학습 계획 및 공지	서울(a)	2,156	3.16	0.583	6.246**	a>b
	경기(b)	4,651	3.11	0.556		
	인천(c)	304	3.07	0.577		
	합계	7,111	3.12	0.566		
학습 진행	서울(a)	2,156	3.09	0.607	3.957*	a>b
	경기(b)	4,651	3.05	0.590		
	인천(c)	304	3.11	0.578		
	합계	7,111	3.07	0.595		
출결	서울(a)	2,156	3.21	0.624	.305	
	경기(b)	4,651	3.20	0.607		
	인천(c)	304	3.21	0.573		
	합계	7,111	3.20	0.611		
평가	서울(a)	2,156	3.03	0.644	2.135	
	경기(b)	4,651	3.00	0.630		
	인천(c)	304	3.00	0.622		
	합계	7,111	3.01	0.634		

* $p < .05$, ** $p < .01$

다. 등교개학 일정 및 상황에 대한 인식

1) 대상에 따른 등교개학 일정 및 상황에 대한 인식

교사, 관리자, 학부모, 학생 집단에 따른 등교개학 일정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교차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대상에 따른 등교개학 일정 및 상황에 대한 인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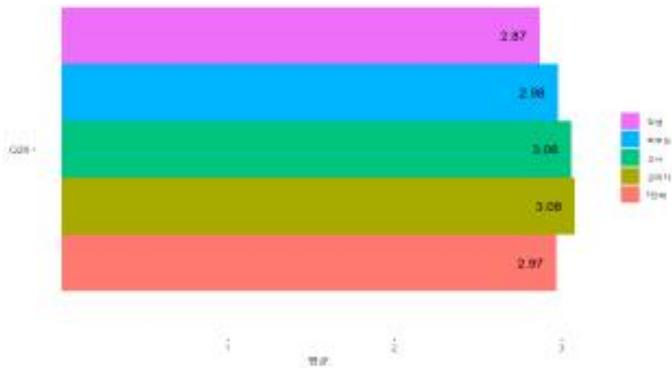
문항	집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비율)	χ^2
		사례수 (비율)	비율	사례수 (비율)	비율	사례수 (비율)	비율	비율			
현재와 같이 교육부가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교사	72 (5.23%)	190 (13.80%)	693 (50.33%)	422 (30.65%)	1,377 (100.00%)	127.542***				
	관리자	8 (3.07%)	42 (16.09%)	132 (50.57%)	79 (30.27%)	261 (100.00%)					
	학부모	132 (3.97%)	486 (14.63%)	2,005 (60.34%)	700 (21.07%)	3,323 (100.00%)					
	학생	182 (8.21%)	348 (15.70%)	1,256 (56.65%)	431 (19.44%)	2,217 (100.00%)					
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교사	77 (5.59%)	201 (14.60%)	714 (51.85%)	385 (27.96%)	1,377 (100.00%)	99.714***				
	관리자	6 (2.30%)	29 (11.11%)	136 (52.11%)	90 (34.48%)	261 (100.00%)					
	학부모	116 (3.49%)	503 (15.14%)	2,015 (60.64%)	689 (20.73%)	3,323 (100.00%)					
	학생	153 (6.90%)	328 (14.79%)	1,293 (58.32%)	443 (19.98%)	2,217 (100.00%)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교사	138 (10.02%)	282 (20.48%)	594 (43.14%)	363 (26.36%)	1,377 (100.00%)	214.972***				
	관리자	23 (8.81%)	53 (20.31%)	106 (40.61%)	79 (30.27%)	261 (100.00%)					
	학부모	119 (3.58%)	474 (14.26%)	2,062 (62.05%)	668 (20.10%)	3,323 (100.00%)					
	학생	160 (7.22%)	357 (16.10%)	1,293 (58.32%)	407 (18.36%)	2,217 (100.00%)					
학교 내 방역이 잘 되고 있다.	교사	37 (2.69%)	136 (9.88%)	633 (45.97%)	571 (41.47%)	1,377 (100.00%)	672.366***				
	관리자	1 (0.38%)	4 (1.53%)	110 (42.15%)	146 (55.94%)	261 (100.00%)					
	학부모	47 (1.41%)	336 (10.11%)	2,324 (69.94%)	616 (18.54%)	3,323 (100.00%)					
	학생	173 (7.80%)	321 (14.48%)	1,309 (59.04%)	414 (18.67%)	2,217 (100.00%)					
코로나19로부터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	교사	267 (19.39%)	585 (42.48%)	366 (26.58%)	159 (11.55%)	1,377 (100.00%)	466.016***				
	관리자	15 (5.75%)	81 (31.03%)	103 (39.46%)	62 (23.75%)	261 (100.00%)					
	학부모	427 (12.85%)	1,585 (47.70%)	1,113 (33.49%)	198 (5.96%)	3,323 (100.00%)					
	학생	688 (27.80%)	769 (33.49%)	570 (24.80%)	190 (8.30%)	2,217 (100.00%)					

		(31.03%)	(34.69%)	(25.71%)	(8.57%)	(100.00%)	
내년(2021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	170	622	444	141	1,377	154.299***
	관리자	17	124	80	40	261	
	학부모	254	1,376	1,261	432	3,323	
	학생	354	745	785	333	2,217	
		(15.97%)	(33.60%)	(35.41%)	(15.02%)	(100.00%)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학입시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	교사	126	523	491	237	1,377	508.667***
	관리자	24	113	87	37	261	
	학부모	174	781	1,513	855	3,323	
	학생	93	263	1,068	793	2,217	
		(4.19%)	(11.86%)	(48.17%)	(35.77%)	(100.00%)	
학생들의 대면 등교 일수가 늘어나야 한다.	교사	151	475	520	231	1,377	309.188***
	관리자	12	58	120	71	261	
	학부모	310	863	1,372	778	3,323	
	학생	494	666	683	374	2,217	
		(22.28%)	(30.04%)	(30.81%)	(16.87%)	(10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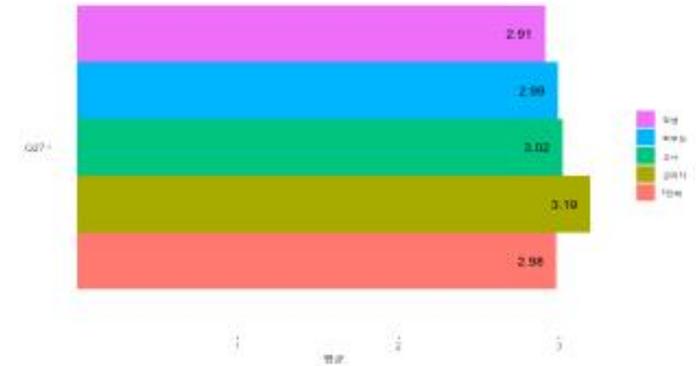
현재와 같이 교육부가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집단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이 교육부가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집단이 그렇다. 응답하였으나, 관리자 집단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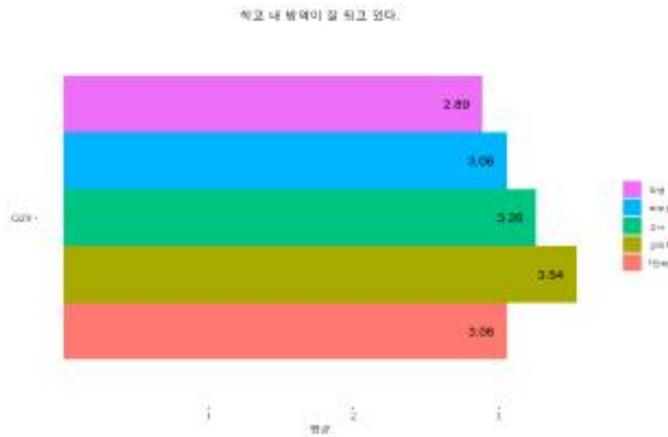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모든 집단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부나 교육청가 주체일 때 보다는 모든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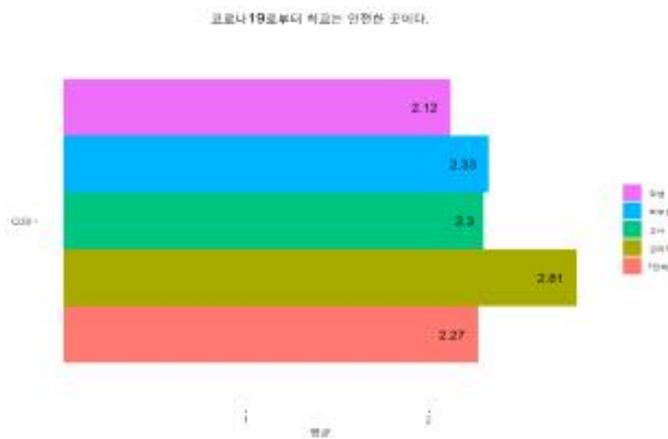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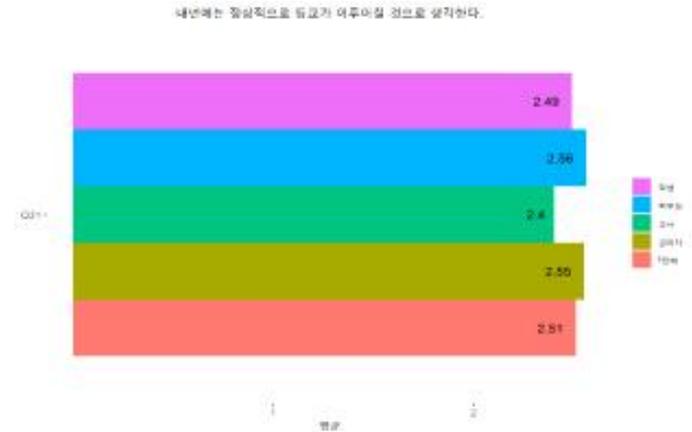
학교 내 방역이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순이었으며 모든 집단별로 일정한 간격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존재하였다. 특히 관리자가 학교 방역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학생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인 것이 두드러지는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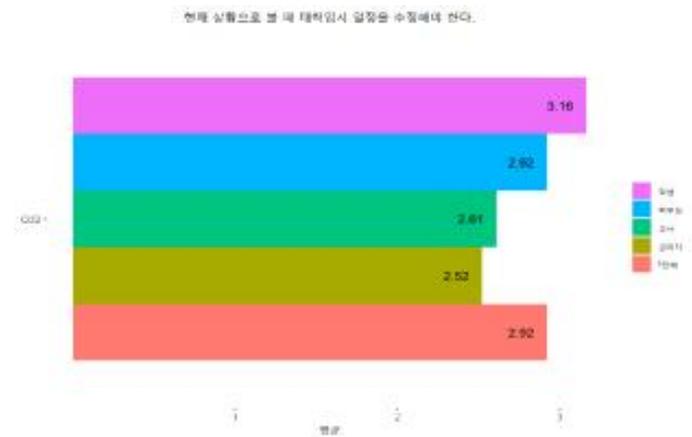
코로나19로부터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는 질문에는 관리자는 긍정적이었던 반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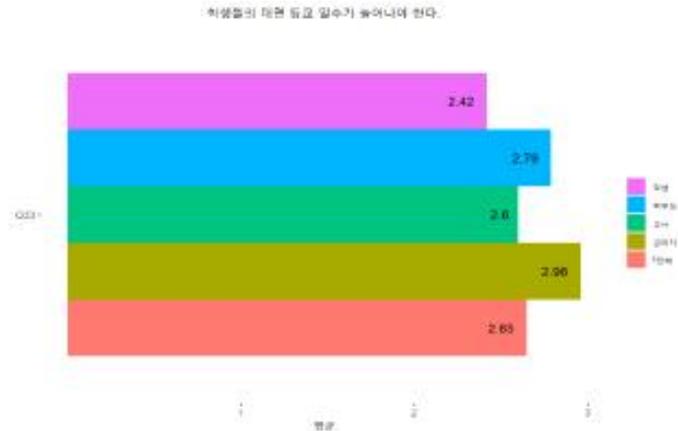
내년(2021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집단이 보통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학입시 일정을 수정해야 하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교사와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학생들의 대면 등교 일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질문에는 관리자, 학부모, 교사, 학생 순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에 따른 등교개학 일정 및 상황에 대한 인식

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및 현황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청이 학교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 대입 일정 수정, 대면 등교 일수 증가에 대해서만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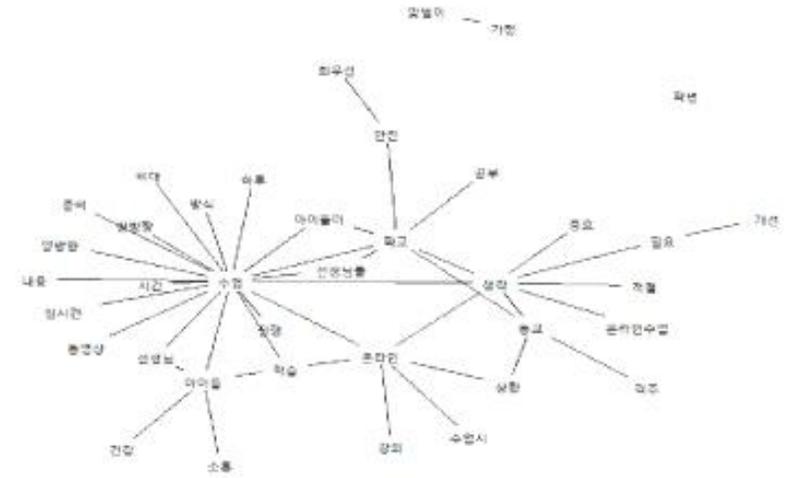
<표 7> 지역에 따른 온라인 수업 인식 분석 결과

문항	집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비율)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현재와 같이 교육부가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서울	103 (4.78%)	308 (14.29%)	1,234 (57.24%)	511 (23.70%)	2,156 (100.00%)	5.872		
	경기	272 (5.85%)	701 (15.07%)	2,639 (56.74%)	1,039 (22.34%)	4,651 (100.00%)			
	인천	16 (5.26%)	43 (14.14%)	181 (59.54%)	64 (21.05%)	304 (100.00%)			
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서울	87 (4.04%)	276 (12.80%)	1,269 (58.86%)	524 (24.30%)	2,156 (100.00%)	17.589*		
	경기	245 (5.27%)	720 (15.48%)	2,686 (57.75%)	1,000 (21.50%)	4,651 (100.00%)			
	인천	14 (4.61%)	47 (15.46%)	173 (56.91%)	70 (23.03%)	304 (100.00%)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서울	140 (6.49%)	362 (16.79%)	1,162 (53.90%)	492 (22.82%)	2,156 (100.00%)	12.315		
	경기	269 (5.78%)	736 (15.82%)	2,704 (58.14%)	942 (20.25%)	4,651 (100.00%)			
	인천	18 (5.92%)	55 (18.09%)	166 (54.61%)	65 (21.38%)	304 (100.00%)			
학교 내 방역이 잘 되고 있다.	서울	76 (3.53%)	229 (10.62%)	1,294 (60.02%)	557 (25.83%)	2,156 (100.00%)	4.963		
	경기	168 (3.61%)	520 (11.18%)	2,872 (61.75%)	1,091 (23.46%)	4,651 (100.00%)			
	인천	9 (2.96%)	34 (11.18%)	188 (61.84%)	73 (24.01%)	304 (100.00%)			
코로나19로부터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	서울	418 (19.39%)	880 (40.82%)	669 (31.03%)	189 (8.77%)	2,156 (100.00%)	7.833		
	경기	899 (19.33%)	1,996 (42.92%)	1,376 (29.59%)	380 (8.17%)	4,651 (100.00%)			
	인천	61 (20.07%)	116 (38.16%)	92 (30.26%)	35 (11.51%)	304 (100.00%)			
내년(2021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251 (11.64%)	862 (39.98%)	766 (35.53%)	277 (12.85%)	2,156 (100.00%)	3.010		
	경기	495 (10.64%)	1,866 (40.12%)	1,674 (35.99%)	616 (13.24%)	4,651 (100.00%)			
	인천	36 (11.84%)	112 (36.84%)	116 (38.16%)	40 (13.16%)	304 (100.00%)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입일시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	서울	123 (5.71%)	561 (26.02%)	938 (43.51%)	534 (24.77%)	2,156 (100.00%)	15.553*		
	경기	271 (5.83%)	1,032 (22.19%)	2,070 (44.51%)	1,278 (27.48%)	4,651 (100.00%)			
	인천	15 (4.93%)	67 (22.04%)	131 (43.09%)	91 (29.93%)	304 (100.00%)			

사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학교 외부에서 코로나 감염자나 밀접접촉자가 교내에 출입한다면 아무리 교내방역에 힘쓴다해도 전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이나 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등), 학생들의 벌어지는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지역별, 가정별 학력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상대적 박탈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공교육만을 의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입전형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 등교 수업 시 학급당 학생수 등과 같은 세부 사항,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교육부는 등교 지침을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에서 해석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등)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의미연결망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응답들 중 등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언론이나 특정 카페에 비하여 정보가 낮은 이른바 ‘교사 패싱’에 대한 불만(“맘카페에서 정보가 돈 대로 그대로 언론에 교육부가 발표되고 심지어 학교 현장에는 말 한마디 언지 하나 없다가 언론을 보고 교육부의 대응과 입장을 알아야 하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 합니다.” 등),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여전히 제한된 조건에 대한 아쉬움(“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 지원만큼 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위한 서버지원, 플랫폼지원, 교사들에 대한 기자재 지원이 필요합니다.”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학부모, 여론 등으로부터 비판 받는 데에 대한 속상함(“학교급과 교과과의 실정에 맞는 온라인 수업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실시간 쌍방향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 학생들에 대한 연민(“하루에 6시간을 마스크를 쓴 채로 어린 학생들이 좁은 교실의 칸막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쓰러워요.” 등) 등도 존재하였다.

2) 학부모의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제안 사항



[그림] 현행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학부모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학부모의 경우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수업’, ‘학교’, ‘생각’, ‘아이들’, ‘온라인’ 순이었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수업의 경우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 및 교사의 동영상 탑재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세부 응답을 살펴본 결과 학교와 교사에 대하여 ebs 등 단순 영상 제시 및 일방향 수업에 대한 불만(“온라인수업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업내용이 부실합니다. 각 학교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수업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구성해주셨으면 합니다.” 등)이 어느 정도 공통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은 양방향-쌍방향-실시간 수업에 대한 강한 요구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사가 학생들과 건강한 소통 속에 학습이 되어야 함(“학습플랫폼과 소통방식이 교사별로 달라 혼란스럽다. 미리 배포할수 있는 학습자료는 출력물로 사전 배포했으면 한다.”, “우리 아이를 보면 아이들과 소통하려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확연히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등)을 원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수업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서 기존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살얼음판인데 개념도 제대로 설명 안해주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게 제 성적이 된다는게 좀 억울해요. 참... 답답하네요.” 등) 등 평가에 대한 불만이 다수 존재하였다.

수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과 부정 의견이 섞여 있었던 것에 비하여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 학교라는 공간의 위험성, 방역에 대한 불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해야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점에 대한 것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진술을 직접 살펴본 결과 “격주 격일로 수업 할 바에는 등교를 안했으면 좋겠다(고3포함)”, “안전이 최우선이다” 등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 외에도 학교들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하였고 현재 상황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서는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에 대한 고민들도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는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설문은 온라인 수업 및 현재 학교 등교상황과 관련된 교원·학생·학부모의 인식 파악에 목적이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통계팀

I.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다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설문응답하는 경우 이하 모든 문항에서 첫째를 기준으로 응답바랍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떤 입장에서 응답하고 계십니까?
 ① 교사(수석교사 포함) ② 관리자(교감, 교장) ③ 학부모 ④ 학생 ⑤ 기타

2.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기타

3. 귀하(교원, 학부모, 학생)가 현재 소속된 학교의 1학기 등교일 수는 얼마입니까?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매일)

II. 다음은 현행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온라인 수업 도입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1-2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				
1-3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커졌다.				

1-4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적어 가정(학부모)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졌다.				
1-5	현재 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인하여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				
1-6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인터넷, 핸드폰)이 심화되었다.				
1-7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의 학습 지원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1-8	등교개학 시점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1-9	우리학교의 온라인 수업 방식에 만족한다.				
1-10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11	우리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 탑재하고 있다.				
1-12	나는 등교개학보다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1-13	코로나19가 끝나도 필요하다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III. 다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문 항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③ 그렇 다	④ 매우 그렇 다
학습 자료 준비	학교는 학습자료(동영상, 라이브 강의, 강의자료, 기타 콘텐츠 등)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였다.				
	학교는 기존 온라인 플랫폼(e학습터, 클래스팅 등)을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 수준은 온라인 학습에 적절하다.				
학습 계획 및 공지	온라인 활동 및 출결확인을 위해 부여된 과제는 학생들이 수행하기에 적절한 분량이다.				
	온라인 수업 개시 및 운영에 대한 안내를 SMS(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학습 진행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학습자료, 게시판, 이메일, 단톡방 등) 하고 있다.				
	온라인 활동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타당한 활동(게시판, 리포트, 과제, 퀴즈,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출결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이나 의견에 답변하였다.				
	매일 온라인 수업 출결확인이 이루어졌다.				

	가정학습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였다.				
평가	학교에서는 과제, 온라인 활동, 게시판, 출석 시험 등으로 학습 평가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리포트 등에 피드백을 주었다.				

출처: 단국대학교(2020) 교수자 자체점검표 참고

IV. 다음은 등교개학 일정 및 상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③ 그렇 다	④ 매우 그렇 다
1	현재와 같이 교육부가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2	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3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 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4	학교 내 방역이 잘 되고 있다.				
5	코로나19로부터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				
6	내년(2021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7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학입시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				
8	학생들의 대면 등교 일수가 늘어나야 한다.				

V. <선택문항> 현행 온라인 수업 및 학생 등교 관련 제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